“개헌 불성립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광주YMCA“5.18정신 헌법 수록 무산 유감” 성명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과 관련 광주YMCA는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역사와 헌정질서 회복 요구를 외면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천명했다.

광주YMCA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한 개헌안이 끝내 국회에서 불성립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광주YMCA는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정략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전면 개헌이 아니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헌정질서를 헌법에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원포인트·단계적 개헌’이었으며, 오랜 시간 국민과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시대적 과제였다”고 전제했다.

성명은 “특히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뿐 아니라, 대통령 비상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 명문화 등 시대적 요구가 함께 담겨 있었다”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국민이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이며,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가능하게 한 민주주의의 뿌리이다.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진영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마땅히 담아야 할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며 “이는 단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다시는 민주주의가 권력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성명에서는 또 “더욱이 이번 개헌은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당리당략과 정치적 계산에 갇혀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결단을 외면하였다”고 적시하고 “광주YMCA는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의 역사와 국민의 뜻을 외면한 정치라고 판단한다. 민주주의의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헌정질서를 외면한 정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광주YMCA는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이번 개헌 무산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으며, 시민사회는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민주주의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한 정치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책임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분명히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YMCA는 “앞으로도 5·18과 부마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고,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개헌이 실현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 청소년 자살예방 캠페인 함께고워크’ 개최

생명의전화-한화생명 “청소년을 향한 응원 ‘걸음’으로”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가 한화생명과 함께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2026 청소년 자살예방 캠페인 함께고워크’를 개최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

‘함께고워크’는 생명의전화가 2020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청소년 응원 캠페인으로, 올해 7회를 맞았다. 청소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희망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음 캠페인’ 형태로 운영된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0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8명에 달한다.(통계청, 2025) 생명의전화는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예방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본 캠페인을 매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4월 27일부터 5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3,000명을 모집한다.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소년을 응원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응원 방식도 ‘기부&걸음 응원’과 ‘걸음 응원’ 두 가지로 확대됐다. ‘기부&걸음 응원’은 기부와 함께 걷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참여자에게는 한정 기념품이 제공된다. 기부금은 생명의전화의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걸음 응원’은 기부 없이도 걸음만으로 참여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러닝·걷기 앱 ‘런데이’를 통해 보다 간편한 캠페인 신청과 인증까지 가능하다.

기념품 역시 의미를 더했다. 기부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NFC 키링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제작된 DIY 형태로, 스마트폰 태그 시 마음 건강 관련 정보가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담았다. 이와 함께 런데이 애프터 런 사워티슈도 제공된다.

이번 캠페인은 생명의전화가 주관하고, 한화생명과 KBS한국방송이 공동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이와 함께 런데이, 빅워크, 피팁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협력해 캠페인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생명의전화는 하반기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을 밝히는 걸음’ 밤길걷기도 진행할 예정이며,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반기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임마누엘식품에서 ‘태양광 발전 봉헌 감사예배’를 드렸다.

생명의 망 잇기 · 임마누엘식품

태양광 발전 봉헌 감사예배 성료

생명의 망 잇기(이사장 강성열 목사)와 임마누엘식품(대표 이우주 목사)이 지난 4월 24일(금) 오전 11시 임마누엘식품에서 ‘태양광 발전 봉헌 감사예배’를 드렸다.

노재화 목사(사무국장)의 인도로 윤중범 목사(곡성반석교회)가 기도한 후 이사장 강성열 목사가 ‘고대 이집트의 저온저장고’(창세기 41:36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생명의 망 잇기는 교파를 넘어 농촌교회와 농촌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교인들의 재생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직거래 판매,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사장 강성열 목사는 “저온저장고, 태양광, 농기계 지원사업, 기본소득 지원사업 등 생명 망 잇기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며 “일시적 지원이 아닌 농어촌교회가 자립의 토대를 세우고 지속적인 목회가 가능하도록 기도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고

홍인화

• 수피아여중·고 총동창회장 • The1904공동대표
• 전)5·18민주화운동기록관

오월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교정에 슬픈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수피아의 영원한 스승이자 광주 기독교계의 든든한 어른이셨던 안영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지며, 목사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수피아 교정에서 만난 ‘멋쟁이’ 교목 선생님

제가 수피아여자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목사님은 저희들의 교목이셨습니다. 채플 시간마다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단상에 서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목사님은 항상 ‘멋쟁이 선생님’으로 통했습니다. 근엄함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와 재치를 잃지 않으셨던 목사님 덕분에, 저희는 매주 채플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곤 했습니다.

이후 서남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시며 지역 사회의 든든한 어른이 되어주신 목사님은, 단순히 강단의 설교자를 넘어 삶 전체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신 참된 목회자이셨습니다.

유화례 선교사의 사랑을 품고 떠난 ‘참 스승’을 그리며

유화례 선교사의 정신을 이은 ‘실천적 사명자’

목사님은 광주 선교 역사의 산증인이셨습니다. 특히 52년간 한국의 여성 교육과 한센인 구호에 헌신한 유화례(Florence E. Root) 선교사님의 양자로서 평생 그 정신을 이어가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소천하실 때까지 친아들처럼 곁을 지키셨고, 그 숭고한 사랑을 역사 속에 남기기 위해 『유화례』를 비롯해 『한국교회의 선구자 언더우드』 등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명은 기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아월교회에 기념실 리모델링 헌금을 전달하며 뜻을 모으신 끝에, 2023년 마침내 ‘유화례 선교사 기념실’ 개관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선교사들의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시며 사재를 털어 헌신하신 목사님의 발자취는 우리 지역 선교 유산을 보존하는 고귀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제자를 아꼈던 따뜻한 거목,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

목사님은 사람을 참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이나 총동창회 업무로 바쁠 때에도, 스승의 날 즈음 찾아뵈면 늘 기도와 축복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후배들을 만나시면 환하게 웃으며 “내 제자들 참 잘 컸네” 하셨고, 저를 향해서는 “홍인화는 어디 가도 내 제자다”라며 은근히 자랑하시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그 곁에는 늘 평생의 동역자이신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수피아 4회 선배님이자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헌신하신 백경옥 사모님과 목사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삶은 저희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피아 홈커밍데이를 준비하며 축사를 부탁드렸을 때도 흔쾌히 승낙하셨고, 지난 어린이날 전화로 “스승의 날 즈음 보자”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안영로 목사님이 떠나신 것은 한 분의 목회자가 가신 것을 넘어, 광주 선교 역사의 큰 페이지 하나가 우리 곁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남기신 사랑의 흔적은 수피아와 광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영로 목사님,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목사님의 제자여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모든시스템 LED SCREEN

“빛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업”

모든 시스템

차별화된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방송 영상 시스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사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이노파크식스틴 마동 301호
지사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BI센터 503호
H.P 010-4138-7532 TEL 062-573-9997

▶조달청등록인증기업(최우수등급)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기업
▶공장등록 / 직접생산증명 보유 ▶직접 수입을 통한 설계 / 시공 / AS 까지 직접 진행
▶음향 / 영상 공사 전문 ▶타업체 LED 스크린 AS 가능

실적으로, 증명합니다!

지면 하나에 다 싣지 못할 정도의 수 많은 실적으로 쌓아온 오랜 경험과 전문성으로,
교회 환경에 최적화된 LED 스크린 시공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배의 감동을 더하는 선명한 화질과 안정적인 운영을 약속드립니다.